

인용된 참고 서적

간하배, 1984 (1970)

다니엘서의 메시야 예언. 서울 : 개혁주의 신행협회

박윤선, 1967

성경주석 :에스겔서 다니엘서. 서울 : 영음사

Young, E. J., 1980 (1949)

The prophecy of Daniel. Grand Rapids :Eerdmans.

高神大學
論文集第16輯
1988. pp.145-169

Mission School들이 韓國教育의
現代化에 끼친 影響

金龍燮*

◇ 目 次 ◇

序論

I. 朝鮮時代의 儒教와 教育

1. 儒教思想과 朝鮮社會
2. 儒教와 教育과의 關係
3. 科舉制度와 教育
4. 儒學教育이 社會, 文化에 끼친 影響

II. 開國과 新教育의 流入

1. 門戶의 開放과 外國과의 修交
2. 對外交涉과 新教育의 輸入

III. 우리나라 教育의 現代化와 宣教 事業

1. 宣教學事業과 現代化의 着根
2. 宣教師들의 來到와 이들에 依한 新教育의 展開

IV. 現代教育의 登場과 Mission School들

1. 最初의 近代學校들
2. 近代教育의 先驅者—Mission School들

- 1) 最初의 中等學校들
- 2) 最初의 大學校들
- 3) 그밖의 Mission School들

3. Mission School들에 依한 近代教育의 展開

結語

參考文獻

* 교수, 교육학 전공

序 論

100余年前에 들어 온 基督教는 우리 나라의 文化, 社會 全般에 걸친 發展에 크게 寄與하였다. 基督教를 빼놓고는 우리 나라의 近代化는 生覺할 수 없다. 그리고 基督教에 依한近代化는 무엇보다도 教育의 近代化를 通해 이루어졌고, 이 教育의 近代化는 改新教 宣教師들에 依해 세워진 mission school들이 主導하였다.

이들 mission school들의 教育에 對한 바른 理解없이는 우리 나라 現代學校教育에 對한 바른 歷史的 評價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宣教師들로 부터 받아드린 改新教와 그리고 이들에 依해 設立된 mission school들을 안다는 것은 韓國의 社會, 文化, 教育을 올바로 理解하는데 不可缺의 要素인 것이다.

本研究는 改新教 初代 宣教師들에 依해 세워진 代表의 몇몇 學校의 設立過程과 初創期의 教育狀況, 内容 等 重要局面에 對해 살펴 보고, 그것이 韓國의 社會, 文化的 現實과 學校教育에 어떠한 影響을 끼쳤는가에 對해 考察할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改新教 宣教師들이 學校들을 세우고 새로운 理念과 内容과 方法으로 教育을 펼치기에 앞서 우리 나라에는 長久한 歲月에 걸쳐 이어져 내려 오던 儒教哲學을 바탕으로 한 傳統的教育이 있어 왔었다. Million School들에 依한 새로운 교육은 이러한 土壤위에서 開拓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現代教育의 先驅者인 mission school들의 教育에 對한 바른 理解는 이의 歷史的 背景인 舊時代의 그것에 對한 바른 理解를前提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脈絡에서 本研究에서는 封建的 教育體制의 典型이라 할 수 있는 朝鮮朝時代의 儒學教育에 關心을割愛하였다.

本研究의 主題가 含蓄하는 領域들은 아주 廣範한 것이어서 本研究와 같은 性格의 作業에 있어서는 이를 全般에 對한 철저한 탐구에 限界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論者는 關心의 視野를 極히 制限할 수 밖에 없었다. 事實 mission school들에 依한 現代的 學校教育의 歷史的 背景으로서의 朝鮮朝時代의 教育을 考察함에 있어서도 여기에는 그 哲學的 原理인 朱子學 그 自體는勿論, 政治, 倫理의 指導理念으로서의 그 思想의 本質과 그에 依해造成된 社會, 文化의 一般的 現實 等에 對한 探究가 빼놓을 수 없는 要素로 대두되는 것이다. 그리고 mission school들에 依해 펼쳐진 새로운 教育과 그것이 우리 教育의 現代化에 끼친 考察에 있어서도 새로운 教育을 받아드리는 社會, 文化的 現實一般은勿論, 이들 mission school들과 함께 變化, 發展했던 一般 學校education의 内的, 外的 諸局面에 對한 考察이 必要할 것이다.

이러한 制約을 안은채 本研究는 先行研究者들의 研究成果를 바탕으로 初期 mission school들이 韓國教育의 發展에 끼친 寄與의 一端을 確認함으로써 微弱하나마 우리의 教育發展에 一助가 되기를 期待하는 바이다.

I. 朝鮮時代의 儒教와 教育

1. 儒教思想과 朝鮮社會

500余年에 걸친 朝鮮朝를 가장 잘 象徵하는 代名詞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儒教의 나라”일 것이다. 韓國의 近代史를 말하게 될 때, 그것이 教育史일 경우에도, 朝鮮時代의 모든 封建制度를 지탱해 온 儒教를 生覺치 않을 수 없다. “惟我韓宗師夫子 三綱五倫 實為國紀 六經四書 遠紹道統 修明禮儀 扶植風化 其來之矣”(朴恩植, 1975, p.26) – 朝鮮은 孔子를 스승으로 삼고 三綱五倫을 國家의 紀綱으로 하며 四書六經을 배워 儒學의 傳統을 繼承하고 禮儀를 修明하여 社會를 教化하였다. 一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政治哲學으로서, 教育哲學으로서, 또는 日常行爲를支配하는 一般生活倫理 規範으로서 우리 나라를 움직였던理念의 源流은 孔孟思想을 바탕으로 한 儒教哲學이었던 것이다.

特히 麗末에 우리 나라에 들어 온 朱子學은 朝鮮社會의 政治, 社會, 文化, 學問 等 모든 領域에 있어서의 根幹을 이루는 哲學的 理念으로서 확고부동한 位置를 굳혔던 것이다.

趙光祖 等에 依해 일어 났던 中宗代의 政治革新을 노린 改革運動도 事實上 朱子學思想에 바탕을 둔 社會改革을 為한 一種의 實踐哲學運動에 不過했던바, 그들의 思想의 源流는 언제나 孔孟과 그들이理想으로 여기는 堯舜時代의 至治主義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後에 대두되었던 사상의 흐름도 結局에는 朱子學을 理念으로 하여 朝鮮社會를 더욱 確固히 재조직하려는 것이었던 것이다(車錫基, 申千湜, 1969, p.293-294).

어떻든 儒教가 朝鮮朝의 封建體制를 지탱했던 中心理念이었던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同時에 儒教는 文化, 社會, 學問, 思想諸 方面에 적지 않은 否定的 影響을 끼친 것도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儒教는 무엇보다도 當代의 支配階層에게 事代主義思想과 黨爭을 助長했고, 또한 家父長的 家族主義, 閉鎖, 排他主義, 尚文, 賤武, 賤勞思想을 부축하였으며 自然科學的 思考와 創意的 行動을 輕視하고, 空理空論과 허황된 權威意識, 名譽意識만이 尊重되는 風潮를 造成했던 것이다.

2. 儒教와 教育과의 關係

이러한 一般的인 文化的 狀況속에서 教育도 例外일수는 없었다. 우리 나라의 教育史가始作된 以來 開化期 以後의 新教育이 登場할 때까지 우리의 教育은 한결같이 儒學이 根幹이었고 또 内容 全部었던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麗末에 朱子學이 들어 온 以來 이러한 傾向은 더욱 두드러졌고 朝鮮朝동안에 이러한 추세는 더욱 深化된다. 朝鮮社會는 한마디로 말해 儒教를 바탕으로 하는 少數 官僚群에 依해 支配當하는 社會였다. 即 儒教는 國家의 指導理念으로서 政治, 社會倫理의 基本理念이었고, 또한 教育의 基本哲學이었으며 立身揚名의 唯一한 道具였다. 當時 佛教는 精神的 指導理念으로 또 社會倫理의 原理로서의 影響力を 상실한채 完全히 배격되었고 儒學만이 精神的, 政治的, 社會倫理의 指導理念으

로서의 영향력을行使했으며, 또한 教育의 唯一한 指針이었던 것이다. 朝鮮社會는 이러한 儒學的 基盤위에 세워진 封建文化였고, 이러한 토양위에서 教育은 나름대로의 명맥을 維持하여 자랐던 것이다.

朝鮮時代의 教育은 前代인 高麗王朝의 그것과 같이 少數 特權支配階級이었던 所謂 士大夫族들의 專有物이었고, 그것도 女子들에게는 그 機會가 全혀 封鎖되어 있었다. 當時 모든 教育機關에는 兩班 子弟들에게만 入學이 許容되었던바 이들은 中央과 地方에 있었다. 漢陽에는 儒學教育機關으로 最高學府인 成均館과 麗末에 나타난 開京의 그것(東, 西, 南, 北, 中部의 五部學堂, 그後 世宗20年 — 1438 —에 北部學堂은 閉鎖되었음)을 이은 四部學堂이 있었고, 地方에는 全國 各地에 鄉校와 書堂(書院) 等이 있었다. 이들은 書堂이나 書院을 除外하고는 모두 官學이었다. 이들 儒學教育機關과 함께 下級職 專門技術官僚를 養成하는 實科教育機關도 있었다. 그것은 朝廷의 技術職種에 따른 當該 部處가 管掌했던 十學으로서 이는 儒教의 教養을 갖춘 官僚養成에 力盡力했던 다른 教育機關들과 比較해 極히 微微한 것이었다.

朝鮮時代 全期間에 걸친 教育은 高麗朝에 있어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兩班階級의 子弟들에게 官僚에의 進出을 保障해 주기 為한 하나의手段에 不過하였다. 그리고 官僚에의 出世는 科舉라고 하는 人材登用選拔制度를 通해서만 可能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教育은 結局 科舉에 應試하기 為한 準備의 課程에 不過했고, 教育 本然의 目標인 教養을 갖춘 全人으로서의 有能한 市民像의 實現과 같은 것은 全혀 排除되었던 것이다.

3. 科舉制度와 教育

일찌기 朝鮮末期의 愛國思想家 李漸는 다음과 같은 興味로운 말을 한 바 있다(李漸—國史編纂委員會, 1955, p.70). “英國의 教育이 自治獨立을 目的으로 했음에 비해 獨逸은 發揮祖國을, 日本은 尊王尚武를 目的으로 하고 있고, 朝鮮은 科名官祿 即 科舉에 合格하여 官職에 올라 륙을 얻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은 近世以前의 우리 나라의 教育實相을 如實히 反映한 意味있는 말로 받아 드려 진다. 朝鮮朝의 官僚 登用制度인 科舉는 當代의 모든 教育을 規定하는 根據였다. 모든 教育機關의 교육 그 自體는 少數 支配階級인 兩班들의 子弟들로 하여금 科舉에 合格하여 官職에 登用될 수 있도록 하기 為한 準備過程이었고, 따라서 教育의 課程도 오로지 科舉에 賦課되는 内容에 따라서 構成되고 運營되었다.

國家가 管掌하는 國家機關에 奉仕할 官僚의 選拔制度는 일찌기 新羅時代에서 그 嘴矢를 찾을 수 있는바 元聖王4年(788)에 始作된 讀書出身科가 그것이다. 一名 讀書三品科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人材登用制度는 當時 官學인 國學에서 修學하는 學生들에게 上, 中, 下의 三等級으로 된 内容의 儒書에 對한 理解 實力의 水準에 따라 官僚들을 選拔하여 任用하는制度로서(韓基彥, 1971, p.26) 後代에 登場한 科舉制度의 先驅者라 할 수 있다.

中國의 科舉制度가 우리 나라에 처음 導入된 것은 高麗朝 光宗 9年(958)이었다. 當時 唐나라의 그것을 模倣하여 채택된 이 科舉制度는 여러 차례에 걸쳐 修正 補完되었고, 1894

年에 폐지되기까지 朝鮮朝에 있어서의 그 役割을 다 했던바 이는 國家의 見地에서는 有能한 官吏들을 登用하는 客觀的 制度로서, 個人이라고 하는 立場에서는 높은 地位와 榮運을 누릴 수 있는 制度로서, 그리고 文化, 社會의 인 觀點에서는 少數 貴族階級에 對한 國家惠澤의 獨占的 享有를 合理화하고 保障하는 典型的 封建體制로서의 그 口實을 했던 것이다.

科學는 文官 登用을 目的으로 하여 講書와 製術을 試驗科目으로 했던 文科와 武官 登用을 目的으로 하여 經書와 武藝를 試驗科目으로 했던 武科와 文科의豫備課程인 生進科 및 專門技術職 下級官僚의 선발을 目的으로 했던 雜科로 나뉘인다. 여러가지 節次와 내용으로 된 이 科舉制度의 基本目的은 上述한 바와 같이 國家관료의 선발 등용이었는데, 이는 또한 支配者로서의 少數 兩班 階級의 永續的 地位와 이에 따른 各種 特惠와 特權을 合理화하고 保障해 주는 기능도 遂行했던 것이다. 일단 科舉(특히 文科)에 合格한 者에게는 國王으로부터 朝廷의 高位職이 直接 賦與되었고 이 官職에는 그 職級에 따라 各種 特權과 特惠가 따랐던 것이다. 여기에는 土地(田畠)가 無償으로 下賜되었고 下層民에 對한 支配權과 이들에 對한 收租權이 주어졌으며, 심지어는 最下層民(奴婢, 賤民)에 對한 所有權까지 부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든 特典은 科舉라고 하는 試驗에 通過한 者에게만 주어졌는데 이에 應試할 수 있는 階層은 極히 制限된 數의 貴族 兩班들의 子弟들에게만 局限되었던 것이다.

4. 儒學教育이 社會, 文化에 끼친 影響

이러한 典型的인 舊時代의 封建的 社會制度는 그것에의 全的인 準備課程인 當時의 教育과 直結된다. 兩班階層에게만 開放된 成均館을 비롯한 각종 教育機關의 教育은 그 内容 全部가 中國의 古典들로만 짜여져 있었고, 이들 儒書들을 基本哲學으로 한 教育은 獨善的, 排他的, 反科學的 人間을 길러 내게 시리 되어 있었던 것이다. 當時 教育課程中 가장 重要視되었던 教科는 論語와 孝經이었다. 이들 教科는 高麗朝의 國子監으로부터 朝鮮朝의 成均館에 이르기 까지 모든 教育構造의 核心, 即 共通 必須科目이었던바 여기엔相當한 理由가 있다. 이는 이 兩儒書가 封建的 社會構造에 立脚한 國家의 支配體制의 秩序確立의 必要에 따라 中國의 諸王朝가 이 論語와 孝經의 思想을 하나의 統治理念으로 採擇하여 이의 實現을 為해 兩書의 理念을 그들의 教育哲學의 根幹으로 삼았다는 데에서 그 理由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國家와 君主에 對한 臣의 忠을 鼓吹하는 論語의 國家(民)倫理와 父母에 對한 子女의 孝를 強調하는 孝經의 家庭倫理는 本質的으로 同一線上에 있는 것으로 大家父長의 體制의 當時의 國家統治에 이들 兩書의 教訓은 그대로 利用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父母에 孝道하고 兄弟間에 友愛하는 人間으로 윗 사람에게 不遜한 사람은 있을 수 없고 爭차 君主에 對한 叛逆이란 있을 수 없으며 國家와 君主에 忠誠하는 人間치고 父母에 不孝치 않는다는 論理에 따라 모든 人間의 生得的인 自然性(父母에의 孝誠)이 國家, 君主에의 忠으로 바로 通하는 것으로 갈파하고 이러한 本然의 人間性을 封建的 國家制度의 統治에 利用하려 했던 것이다. 따라서 治國泰平은 人民의 君에 對한 忠誠에 있으며 人民의 君에 對한 忠誠은 家庭에 있어서의 孝·弟에 있다고 하는 孔子의 思想은 大家父長의 封建社會構造를 가지고 있는 國家의 統

治理理念으로서 높은 價值로 인정되었고, 따라서 朝鮮朝時代의 教育에 있어서의 儒經(論語, 孝經)의 이러한 思想이 當時의 社會와 國家體制의 封建的 秩序를 바로 잡아가는 統治哲學으로 採用되었음은 어느 意味에서는 當然하다 할 수 있다.

論語와 孝經의 이러한 倫理는 朝鮮朝의 封建社會의 支配階級인 士大夫들과 下層民인 일반 大眾과의 關係에도 適用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識者層인 兩班들은 愚民大眾에게 無限의 忠誠과 無條件的 服從을 強要했고, 이러한 그들의 特權에 土地의 所有權과 收租權이라고 하는 物質的 特惠까지 수반되자 이러한 利權의 獨占을 為해 그들 相互間의 爭奪까지도 빛게 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우리는 朝鮮朝 500年동안에 있었던 亡國의 派爭의 原因中 重要한 하나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朝鮮朝 教育의 全部였던 儒學은 當時의 急變하는 時代의 狀況에 創造的으로 適應치 못하고 오히려 時代에逆行하는 結果를 빚어내기만 하였다. 儒學의 主潮를 이루었던 朱子學은 人倫關係와 學問의 認識을 區別치 못하여 倫理 道德이 自然을 說明하는 原理로 誤認되기도 하여 人間과 自然과의 關係에 對한 認識에 混亂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學問의 立場은 菲常 人間에게 科學的 思考의 進步를 沮害하기 마련이어서 여기에 舊教育의 後進性의 根源이 있었던 것이다.

朱子學이 朝鮮 社會, 文化 一般과 學問, 特히 教育에 끼친 또 하나의 否定的 影響은 그 偏狹性과 獨斷性, 排他性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朝鮮社會에 있어서는 高麗朝에 있어서와 같이 儒教와 佛教의 均衡, 調和는 볼 수 없었고 오직 朱子學을 바탕으로 한 儒學의 哲學만이 唯一한 最高 原理로서 政治, 社會, 倫理의 規範이었다. 朱子學以外의 다른 모든 學問과 宗教는 邪學이요 邪教라고 하여 배척당하게 되었다. 有名한 儒學者라도 他 學問이나 他 宗教에 好意의 일 때에는 排斥當했다. 例컨데, 高麗末期의 大儒學者인 李穡은 유학에 끼친 커다란 功獻에도 불구하고 그의 佛教觀이 好意의 이었다는 이유로 朱子學者들에게 배척당해 끝내 文廟에 從祀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朱子學을 제외한 모든 다른 學問에도 適用되었던 바, 壬辰亂을 前後해서 들어 온 中國의 象山學과 陽明學도 邪學이라 해서 排斥當했고, 朝鮮 中期 以後의 朴世堂에 依한 朱子學의 새로운 해석마저도 엉뚱한 응징의 對象이었던 것이다(車錫基, 申千湜, 1969, p.160). “萬若 朱子學以外의 다른 學說을 주장하면 斯文亂賊의 이름으로 덮어 씌워지고 一般 儒學者도 그것을 異端 邪說로 배척하며” 朱子의 學問 以外의 다른 學派가 存在할 수 없었다 (朴恩植, 1975, p.47).

이러한 朝鮮時代의 思想의 構造下에서는 學問의 自由로운 研究 發展은 圖謀할 수 없었고 學者(儒學者)들의 學問의 態度도 極히 姑息의인 것이어서 기존 질서에 영향하여 이의 유지에 급급했던바 이러한 狀況 속에서 學問 自體의 進步는 말할 것 없고 社會 文化的 改革, 發展이란 염두로 못냈던 것이다.

政治, 社會, 文化, 教育 等의 唯一한 指導哲學이었던 朱子學을 主軸으로 한 儒教哲學의 이러한 獨斷性, 排他性, 閉鎖性은 學問이나 教育에는 勿論 政治, 社會 一般에도 그대로 反

映되었다. 科舉에 及第하여 높은 官職과 強한 權力과 많은 土地와 財貨를 손에 넣은 兩班들 사이에는 自身에게 주어진 힘과 富를 守護, 強化하기 為한 갖가지 權謀術手가 動員되었고 여기에 四色派黨이 形成되어 추잡한 갈등이 蒙起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時勢下에서 朝廷에 依해 펼쳐진 鎮國政策도 當然한 結果였다 할 수 있고 때마침 急變하는 바깥 事情에 눈이 어두워 이에 適當치 못한 結果는 우리 나라의 後進的 實相으로 그대로 反映되었던 것이다. 教育도 이러한 추세에서例外일수는 없었다.

III. 開國과 新教育의 流入

1. 門戶의 開放과 外國과의 修交

大院君의 鎮國政策이 아무리 완고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時運을 拒逆할 수는 없었다. 우리나라 沿岸 到處에 艦船을 寄泊시켜 놓고 門戶開放을 促求했던 歐美 諸國의 壓力を 뿐만 아니라 限界가 있었고, 이미 歐美 列強의 文明을 輸入하여 開化 維新에로 一路邁進하고 있던 隣接國 日本과 清國의 新로운 氣風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나라에 浸透하기始作하였다. 北으로 清國을 배우고 東으로 日本의 開化思想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하는 生覺은 뜻있는 一般人들 뿐 아니라 國王과 文臣들의 마음속에 까지 爽트고 있었던 것이다.

오랜 동안 東方의 隱遁國으로 머물러 오던 우리나라가 急變하는 바깥 世上에 눈을 떠 獨善, 閉鎖的인 孤立政策을 버리고 視野를 國際舞臺로 돌리게 되는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은 高宗 13年(1876)이었다. 이러한 歷史的 巨步는 이해에 日本과의 丙子修好條約의 締結로 내디뎌졌는데 이로써 오랜 동안 固守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鎮國의 外交政策은 開放化의 方向으로 전환했던 것이다. 이를 起點으로 하여 1882年에는 美國, 英國, 獨逸 等과도 修交가 이루어졌고 그 後 伊太利, 露西亞, 佛蘭西, 壞地利 等과도 門戶가 트였는바*, 이로서 우리나라의 그동안 固守해오던 中國一邊到의 外交政策에서 벗어나 隱遁國으로서의 國家觀念을 脱皮 一新하여 世界史의 흐름에 合流하게 되었던 것이다.

* 이들 條約들은 벨지움과 맺은 우편조약을 除外하고는 모두 通商을 目的으로 한 것들로서, 이때로 부터 각국과 締結된 條約들을 年代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 相對國 | 年代 | 相對國 | 年代 |
|-----|----------|-----|------------------------|
| 日本 | 1876年 2月 | 佛蘭西 | 1888, 8 |
| 美國 | 1882, 5 | 壞地理 | 1892, 6 |
| 英國 | 1882, 6 | 中國 | 1899, 9 |
| 獨逸 | 1882, 6 | 벨지움 | 1901, 4 |
| 伊太利 | 1882, 6 | 丁抹 | 1902, 7 |
| 露西亞 | 1884, 7 | | (韓基彥, 1971, p.251-252) |

2. 對外交涉과 新教育의 輸入

이러한 狀況속에서 우리 나라의 教育에도 커다란 變化가 나타나기始作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 나라의 唯一한 教育哲學이었던 朱子學—그 獨斷性, 排他性, 閉鎖性—에 對한 심각한 反省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落後된 哲學에 바탕을 둔 教育을 打破하고 西洋의 先進 文物制度를 輸入함으로써 우리의 教育을 刷新하여 國家, 社會를 開化發展시키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現象은 西洋 諸國과의 條約에도 反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主要한 例를 몇가지 들어 보자. 1882年에 美國과의 사이에 締結된 條約의 第10條에는 “兩國生徒往來하여 學習, 言語, 文字, 律例, 藝業等事는 彼此 均宜 勤助하여 以敦睦誼한다.”라고 하여 우리 나라의 教育史上 最初로 西洋과의 留學生 交流를 規定하고 있고, 佛蘭西와의 條約(1888)에는 第二條 二項에 “學習或教誨語言文字”라고 하는 教育과 關連된 表現이 있는가하면 特히 露西亞와의 사이에 체결된 條約(1884)은 우리 나라의 外交史上 최초로 우리 글인 한글로 表記되어 있어 注目할만 하다(震擅學會 : 韓國史 現代編, 車錫基, 申千湜, 1969, p.269).

이러한 나라의 門戶開放과 外國의 先進文物의 輸入에 對한 바램은 1873年 攝政 大院君이 下野하고 國王의 庶務親政이始作되면서 더욱 具體化된다. 이러한 開化의 過程은 우리 나라의 人材들을 外國에 보내어 그곳의 先進 文物를 배워 오게 하는 形태로 進展된다. 그 重要한 事例를 몇가지만 살펴 보자. 最初로 우리의 人材를 보낸 나라는 日本 으로서 때는 1876년이었다. 이해에 金綺秀를 비롯한 使節團 75名이 修信使의 資格으로 일본에 派遣된다. 4年뒤인 高宗17年(1880)에는 金弘集을 비롯한 58名의 使節團이 同一한 資格으로 日本에 파견된다. 이들은 日本의 軍事, 產業, 教育, 等各 分野에 걸쳐 살펴 본 바 있는데, 特히 金弘集은 귀국하자 西洋의 先進 技術文化를 받아 드려 유신의 歷史的인 偉業을 成就한近代化된 日本의 文物制度를 輸入할 것을 主張했던바 이것이 받아 드려져 다음 해인 高宗18年 正月에는 朴正陽을 비롯한 10余名으로 된 “紳士遊覽團”이 日本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70余名동안 그곳의 軍事, 產業, 教育은勿論 여러 行政施設까지 상세히 시찰하고 돌아 왔었다. 여기 特記할 만한 것은 이 紳士遊覽團員中 尹致昊, 俞吉瀨, 柳完秀 等 세사람의 青少年은 돌아 오지 않고 東京에 殘留하였는데 尹은 同人社에, 그리고 俞와 柳는 廉應義塾에 각各 入學하여 修學했다는 事實이다. 이들은 우리 나라 사람으로 最初로 現代教育을 받은 人材들이라는 點에서 歷史的 人物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에 이어 같은 해에 具允敬, 朴敬寅, 姜近永 等 세사람의 카톨릭 青年들은 上海에 留學했고, 또 서재필을 團長으로 하는 10余名의 青年들은 日本에 건너가 工業技術을 習得했으며, 그 이듬해에는 金玉均의 인솔로 50余名의 青年들이 日本에 건너가 그곳의 先進文物을 習得한바 있다(金良善, 1970, p.61).

以後 外國의 先進文物을 習得하기 為한 우리 나라 젊은 이들의 발길은 줄을 이었고, 이러한 時代의 狀況속에서 우리 나라의 舊時代의 封建體制는 뿌리채 훈들리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랜 동안 우리나라의 教育을 支配해 오던 唯一한 哲學인 朱子學도 쇠퇴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一般的인 추세하에서 우리의 教育에도 그 理念의 局面에서나 實際의 局面에

결쳐 先進化의 一大變革이 활발스럽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III. 우리 나라 教育의 現代化와 宣敎事業

1. 宣敎事業과 現代敎育의 着根

우리 나라 社會, 文化, 一般의 現代化나 教育의 先進化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宣敎師들의 役割이었음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위에서 言及한 우리 나라 사람들의 海外留學도 中國(天律)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모두가 在日 美國宣敎團과 直接, 間接의 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1881年12月 紳士遊覽團의 一員으로 東京에 留學한 韓國最初의 外國留學生이었던 尹致昊는 後日에 宣敎師의 알선으로 美國에 건너가 그곳 大學을 卒業하고 歸國하여 우리 나라에 南監理敎會를 創設함과 同시에 韓英書院, YMCA 等을 창설하여 우리나라의 現代敎育에 크게 寄與했으며, 1883年에 있었던 金玉均 等 50名의 유학생 파견의 이면에도 在日 宣敎團의 뒷받침이 컼던 것이 사실이다(金良善, 1970, p.61).

基督教(Protestant)는 이미 1830年代부터 바닷길을 通하거나 或은 滿洲와 日本을 經由하여 우리 나라와 接觸하기始作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 對한 宣敎 및 教育事業을 제일 먼저 計劃한 것은 在日美國宣敎團이었다. 그들은 1878年에 日本基督教一致敎會中會에서 韓國에의 宣敎計劃을 立案했고 이에 따라 同會는 6人의 委員을 선출하여 同 계획의 實踐方法을 講究케 한바 있다(金良善, Ibid., p.61). 이러한 實踐計劃이 具體化된 것은 1882年 李樹廷이 東京에 건너가서 在日美國宣敎團과 關係를 맺게 되면서 부터였다. 李樹廷은 東京에 도착하자 곧 基督教에 개종했고, 在日美國北長老會宣敎師 Knox(G.W.)牧師와 同監理敎宣敎師 Maclay(R.S.)牧師와 더불어 韓國宣敎를 계획하는 한편(1885年 12月 24日字 李樹廷 書翰 ; 金良善, Ibid., p.62), 在日美國聖公會 總務 Loomis 牧師와 함께 在日 留學生들에게 傳道하는 同時에(Maclay, R.S., 1884 : 金良善, Ibid., p.62), 앞으로 있을 本格的인 宣敎活動을 為해 聖經과 教理書를 한글로 譯刊하여 우리 나라에 對한 宣敎事業에 對備케 했던 것이다. 이때 改革派의 巨頭였던 金玉均은 李樹廷의 案내로 1882年 以後 數次 在日 美國人宣敎團들을 만나 우리 나라에 對한 宣敎 및 教育事業에 關해 論議한바 있다(North Presbyterian Mission Report for 1885, pp.128, 130 ; 金良善, Ibid., p.62). 특히 1883年 여름 50名의 留學生을 인솔하고 東京에 갔을 때 金玉均은 Loomis, Knox, Maclay 牧師 等을 為해自身이 배운 연회석상에서 적어도 2年 以內에 韓國에 對한 宣敎 및 教育事業이 開始될 수 있도록 努力할 것을 約束했다(Loomis, 1916). 이에 在日 美國監理敎會 宣敎師 Maclay목사는 1884年 6月에 金玉均을 믿고 그 夫人과 함께 서울에 와서 金玉均을 通해 國王에게 美國人宣敎師의 韓國에서의 教育 및 醫療事業을 할 수 있도록 允許를 請願했다. 國王은 在日 美國人宣敎團들의 請願을 檢討하고 金玉均의 意見을 청취한 後 이를 윤허하였고, Maclay를 통해 美國領事館앞에 教會設立과 教育事業을 為한 부지를 買收했던바 이것이 곧 貞洞敎會 건너편에 있는 저 有名한 Gray House가 서 있는 곳으로 이는 實로 우리나라의 基督敎 및 現代敎育의 發祥地가 되었던 것이다(金良善, Ibid., p.62).

2. 宣教師들의 來到와 이들에 依한 新教育의 展開

우리 나라에 基督教(改新教)를 들여와 政治, 文化, 全般에 걸쳐 現代化의 길을 트고, 무엇보다도 現代學校를 세워 우리 나라 教育의 封建性, 落後性을 脱皮케 하여 先進化의 길로 치닫게 했던 것이 美國人 宣教師들이었음은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1884年 4月 中國에서 宣敎事業에 從事하고 있었던 Reid(Gilbert)는 美國에 있는 宣敎本部에 報告를 보내어 朝鮮을 基督教 宣敎地로 確保하는 것이 緊急한 과제라고 力說하였다. 그는 宣敎에 從事할 사람은 처음에는 宣敎師로서가 아니라 教師나 醫師의 資格으로 宣敎活動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為해 教師는 英語敎育에 必要한 서적을 준비하고 醫師는 各種 藥品과 醫療器具를 지참해야 한다고 하는 方法論을 提示했다. 그는 또한 經濟的 進出에 先行하는 宣敎事業이야 말로 西洋文明의 명성을 朝鮮에 가르치는 길이라고 主張했다(Paik, L. G. 1973, p.75—76). 이는 같은 해에 비준된 英國 및 獨逸파의 條約에도 規定되고 있는바, 이는 開港場에서의 外國人の 禮拜를 許諾하며 우리 나라 사람의 고용도 認定한다고 하는 새로운 時勢의 進展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더우기 이에 앞서 世界戰略에 있어서 基督敎가 담당할 役割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있던 美國政府는 當時의 駐韓 美國公使인 Foote에게 보낸 國務省訓令에서 “政府는 信仰의 自由가 開化된 모든 나라에 있어 當然한 政策이라고 믿어 訓令하니 貴下는 적절한 範圍內에서 선교사를 도와 주며 또한 모든 宣敎師들에 대해 親切히 대하도록 朝鮮人들을 道려할 것을 希望한다”(Korean-American Relations, Vol. I, No. 28, 1883, p.35)고 하면서 우리 나라에 入國하는 宣敎師들을 外交的 努力에 依해 最大限 支援해 주도록 指示한바 있었다.

이에 앞서 우리 政府는 韓美條約이 체결된 이듬해인 1883年 여름에 報聘大使로 閔泳翊一行을 美國에 親善使節로 파견했는데 이때 New York에 있는 감리교 선교본부는 閔泳翊으로 부터 우리 나라의 事情을 듣고 宣敎의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同 宣敎會는 當時 日本에서 선교활동중이던 美國人 宣敎師 Maclay(R. S.)로 하여금 우리 나라를 訪問하여 事情을 알아 보게 했다. 이러한 任務를 떠고 Maclay 夫妻는前述한 대로 1884年 6月에 우리 나라에 와서 金玉均의 案内로 高宗을 알현하고 教育과 의료사업의 允許를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1884年 9月 美國北長老敎宣敎會所屬인 Allen(Horace N.) 夫婦가 美國公使館所屬의 醫師로서 入國하였다. Allen은 實로 우리 나라 最初의 改新敎宣敎師로서 基督敎를 忌避하는 朝鮮의 事情을 考慮하여 면밀한 계획하에 醫師의 資格으로 입국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그는 宣敎師로서의 活動은 벌리지 못했었다. 이러한 딱한 事情에 처해 있을 때 그에게는 天運이 닦쳐왔다. 即, 赴任한지 몇개월 지난 무렵 Allen은 甲申政變에서甚한 負傷을 當한 守舊派의 閔泳翊을 現代醫學으로 치유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因緣으로 그는 朝廷으로부터 好感을 사게 되었고, 그리하여 이를 계기로 그 後에는 宣敎活動이 事實上 묵인되었던 것이다.

다음 해인 1885年 4月 5일에는 美國北長老敎宣敎會의 Underwood(H. G.) 牧師와 北監理敎宣敎會의 Appenzeller(H. G.) 牧師 및 Scranton(M. F.) 女史가 宣敎師라고 하는 公式的인 資

格으로 仁川 濟物浦에 上陸했다.

天主敎를 代身하여 새롭게 登場한 改新敎는 머지 않아 執權層에의 近接에 成功했을 뿐 아니라, 또한 現代醫學을 바탕으로 한 人間의 疾病退治와 새로운 形態의 教育(敎化라는 表現이 더 妥當할 것이다) 事業을 通해 一般大衆속에 徐徐히 浸透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為政者들은 西洋文物의 輸入을 막는 것은 이미 不可能해졌으며 오히려 宣敎師들이 가지고 온 現代的 文物을 利用하여 王權의 強化를 도모하는 것이 上策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尹健次, 1987, p.72). 이렇게 해서 周邊與件이 好轉됨에 따라 宣敎活動은 本格的으로 展開되었고 뿐만 아니라 宣敎政策上의 配慮에 따라 우리 나라에는 現代 醫療事業과 함께 特히 現代化된 教育事業이 活潑스럽게 펼쳐지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宣敎의 目的을 실현키 위한 가장 優良적인 方便으로 初代宣敎師들이 教育事業에 着眼했던 것은 事實은 Underwood, Appenzeller兩牧師의 内外가 서울入城에 앞서 當時의 駐韓美國公使(Foote)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書信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는 教育事業을 始作하고 語學을 研究하려고 왔읍니다. … 우리는 서울에서 韓國語研究生으로서 또는 教育事業家로서 美國의 國旗아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읍니까?… 지금은 宣敎事業이 아니라 教育事業을 始作함이 어떻습니까?”(培材學報第1號, 金良善, Ibid., p.63). 이러한 事實은 Underwood牧師가 1884年 가을 中國으로 부터 入國하여 醫療宣敎事業을 開始한 美國北長老敎宣敎師 Allen이 病院學校(廣惠院)의 教師로 왔고, 또 들어 오자 곧 이 機關의 醫學班에서 가르쳤다고 하는 記錄(Underwood, L. H., Fifteen Years Among Top-Knots, p.6)에서도 確認된다.

우리 나라의 宣敎事業이 그 初期에 醫療事業과 特히 教育事業으로 부터 始作되었다고 하는데에는 그럴만한 理由가 있다. 宣敎事業이 教育事業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 背景에 對해 여기서 簡略히 考察해 보자.

韓國의 宣敎歷史에서 教育事業이 宣敎의 方便처럼 여겨졌던 것은 그것(敎育事業)만이 韓國政府로 부터 許容된것이라고 하는 不得已한 事情에 緣由한 것만은 아니었다. 万若 그랬다면 1890年代初에 宣敎事業이 公公然히 認定되었을 때에는 教育事業(과 의료사업)은當然히 中斷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宣敎事業의 活潑한 展開와 함께 教育事業이 더욱 興旺했던 것은 宣敎와 教育이 本質的으로 따로 分離될수 없는 것이라는 데서 그 理由를 찾아야 한다.

韓國敎會가 그 宣敎 初期부터 教育事業과 함께 發展하게 된 첫째 까닭은 그리스도敎의 本質的 真理는 무엇보다도 教育에 依해 理解된다는데 있다. 聖經의 오묘한 真理는 教育에 依해 깨우쳐 질수 있고, 聖經에 對한 豐富한 知識은 信仰을 堅固히 하는 根據가 된다. 宗敎改革者 Calvin이 教育을 敎會가 감당해야 할 必須事業으로 여기고 敎會옆에 學校가 있어야 할 것에 着眼하여 Geneva에서 教育事業을 展開했던 것도 이러한 緣由에서 인 것이다. 참된 信者의 養成은 참된 그리스도의 訓練을前提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教育事業은 宣敎事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部分인 것이다. 敎會가 세워지는 곳마다 學校를 세워 참된 그리스도의 訓練(敎育)을 했기에 韩國敎會는 早速한 期間에 成長하고 發展했던 것이다.

韓國의 宣敎事業이 教育事業이 先行하고 또 隨伴했던 둘째 理由는 學校는 그 自體가 바로 傳道의 機能을 發揮할 수 있는 本質的 性格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教育은 本來 人間의 精神을 깨우치는 機能을 遂行한다: 宣敎師들에 依해 이루어졌던 初期敎育은 그 어떠한 專門的인 知識이나 技術의 傳授보다도 우매한 사람들의 눈을 띄워 그 人間性을 깨우치는 것이었다. 이러한 教育 本然의 機能은 암흑한 人間의 罪性을 깨우쳐 새로운 生命의 창조를 기약하는 基督敎 福音의 宣敎(宣敎)과 바로 相通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韓國의 宣敎事業은 教育事業과 接木되어 눈부신 發展을 이루할 수 있었던 것으로 宣敎師들에 依해 세워진 學校들은 바로 聖靈한 傳道機關으로서 不信者들을 信者化하는 役割까지 감당했던 것이다. 基督敎學校에 들어 온 學生들은 처음엔 英語를 배워 出世하려고 學校의 문을 두 들었지만 그들은 얼마지 않아 꿈에도 生覺치 않던 基督敎의 眞理를 깨우쳐 참된 삶의 길을 찾았던 것이다. 1887年 까지에는 學生의 大部分이 不信者였지만 1890年에 이르러서는 禮拜에 參席하는 者의 數가 적지 않았다고 하는 培材學堂의 例(North Methodist Episcopal Church Report for 1885, p.239)는 이러한 事實을 確認해 주는 한 例이다.

初期 宣敎事業이 教育事業과의 不可分의 關係에서 이루어진 세째번의 理由는 當時 宣敎學校들이 教役者를 養成하려는 目的도 성취하기 為해서 세워지고 운영되었다고 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全혀 生素한 異邦 나라 韓國에 遠大한 宣敎의 포부를 안고 온 初代 宣敎師들은 少數인 自身들만의 힘으로는到底히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리하여 現地人 同役者가 무엇보다도 必要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들 同役者들을 그들이 세운 學校에 들어 온 學生들에게서 求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學校는 韓國人 傳道者の 養成이란 중요한 기능도 감당했던 것이다. 梨花學堂의 教育의 目的은 學生들로 하여금 그들의 친구와 이웃중에서 十字架의 證據者가 되게 하는데 있다고 한 梨花學堂의 設立者 Scranton夫人的 말(Gilmore, G. W., "Korea from its Capital," p.300)은 이러한 당시 상황을 잘 알려 주고 있다.

初代 宣敎師들이 그들이 目的으로 한 宣敎事業의 일환으로 教育事業을 展쳤던 네번째 理由는 無知의 어두움속에서 헤메던 韓國人們을 救해 내어 그들에게 文明의 惠擇을 다른 世界人과 함께 享有할 수 있도록 하려는 崇高한 人間愛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證據者는 宣敎師를 포함해 그 무엇이 되기에 앞서 먼저 人類의 구속을 為해 十字架위에서 희생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實踐者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랑의 實踐없이는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行動을 한다 할지라도 그에 依해 전파되는 福音이 받아드려질 까닭이 없다. 우매한 韓國百姓들을 無知의 暗黑에서 救하여 文明의 世界로 引導하려는 初代 宣敎師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動機는 韓國民一般大衆(그동안 전혀 教育의 機會에서 봉쇄된)에 對한 教育으로 (의료사업과 함께) 나타난 것이다.

IV. 現代敎育의 登場과 Mission School들

1. 最初의 現代敎育 一通辯學校, 育英公院, 廣惠院

그동안 긴 세월에 걸쳐 굳게 닫혔던 門戶가 활짝 열려 外國과의 關係가 트임에 따라 무엇보다도 必要했던 것이 外國語를 理解할 수 있는 通譯者였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事實은 國王께 올린 柳完秀의 다음과 같은 上疏에도 잘 나타나 있다(承政院日記, 高宗 19年 8月 23日 條 참조; 韓國敎育史研究會, 1984, p.194). “外國과 條約을 맺고 交涉을 하는데 通譯者들이 中國에서 귀먹어리 노릇을 하고 있으니 外國語를 가르쳐야 된다.” 불길듯이 들어오는 西歐의 文化를 消化하려면 新刊書籍을 普及하고 機械를 輸入하여 活用하고 技術을 배워 익혀야 했고, 잦아진 外國과의 交涉을 원만히 進行하는데에는 무엇보다도 外國語의 教育이 必要했던 것이다. 이러한 時代의 要請에 따라 한 教育機關이 세워졌는바 이것이 곧 通辯學校였다. 1883年 8月에 韓國政府의 外交顧問官인 Mollendorf(P. G. Von)와 Halifax(T. E.)의 主管下에 서울에서 始作된 英語講習所인 이 學校는 우리 나라 近代學校의嚆矢로서의 榮譽을 찾이한다(Underwood, H. H., 1926, p.13). 英國人 Halifax와 中國人 教師에 依해 가르쳐진 通譯官養成機關인 이 學校는 政府의 行政上의 必要에 따라 임시로 세워진 것으로 內實있는 正式學校는 아니었다. Underwood牧師의 다음과 같은 말(Underwood, Ibid.)은 이러한 事實을 잘 뒤받쳐 주고 있다. “Even if the institution holds its historical honor, it was not in itself a school of vital importance though graduates did good and useful work in other schools, in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in the foreign legations and in many other positions.”

이 通辯學校는 1886年에 育英公院(Royal School)이 생기자 자취를 감추었음에 비추어 育英公院의 前身이라 할 수 있다. 官立으로 華族學校인 育英公院의 設立은 政府에 依한近代敎育의 出發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 教育史上 획기적인 일이었다.

우리 朝廷의 몇차례에 걸친 美國務長官을 通한 請願에 따라 内務省 教育局長(G. F. Eaton)에 依해 選拔되어 1886年 7月 4일에 入國한 Hulbert(H. B.), Bunker(D. A.), Gilmore(G. W.)等 세사람의 美國人 教師는 모두 New York에 있는 Union 神學校(Union Theological Seminary)의 卒業生으로서 傳道에 热意를 쓰았던 青年 宣敎師들이었다. 이들을 教師로 해서 外國과의 交涉에 必要한 語學敎育을 基本目的으로 1886年 9月 26일에 開校된 育英公院의 수업은 英語로 行해졌고 敎科書도 英語로 쓰여진 것이 使用되었다. 英語를 理解하지 못하는 學生에게는 通辯學校에서 養成된 通譯이 세사람의 美國人 教師에게 한사람씩 配定되 授業을 도았으나 後에는 英語習得의 効率을 考慮하여 通譯없이 수업이 이루어졌다. 學生들의 英語에 對한 理解가 可能케 되자 自然科學이나 數學도 가르쳤지만 그 程度나 成果는 極히 微微한 것이었다.

育英公院은 先進國에서 온 教師들의 現代的 意識과 方法으로 教育이 이루어졌다는 點에서近代學校라고 하는 評價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엄밀한 意味에서는 現代敎育機關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局面들이 許多하다. 指摘되어야 할局面들 중 主要한 하나는 그 設立目的과 學生選拔에서 찾을 수 있다. 이 機關은 약간의 現代的 知識을 갖춘 人材를 養成하여 政治, 外交上의 現實의 必要에 對處하고 意圖하는 內外政勢에 對應함으로써 王權을 再編, 強化할 것을 도모하려는 目的으로 세워졌던 것이다. 따라서 學生選拔에 있어서도

一般에게는 全혀 機會가 주어져 있지 않았고 少數 貴族 兩班계층의 子弟에게만 局限되었었으며, 그것도 老論, 少論, 南人, 北人의 四色黨派에게 按配하는 等 舊時代의 封建的 遺習을 그대로 踏襲했던 것이다.

이러한 構造的 狀況下에서 教育機能이 순탄하게 발휘되기는 어려웠다. 뿌리깊은 外國人에 對한 排他意識에서 비롯되는 教師들에 對한 不信과 教育내용에의 不滿, 그리고 教師들과 政府 高官사이의 마찰 등으로 얼마 가지 않아 初代 西洋人 教師 세사람은 學校와의 關係를 끊게 됨으로써 育英公院은 教育機關으로서 기능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育英公院은 우리 나라의 學校가 舊教育에서 新education으로 發展하는 過程에 있어서 교량적役割을 했으며 官立學校로서는 最初로 西洋式 教育課程에 準한 教育을 實施했다는 點에서 우리 나라 教育史의 意義가 있는 것이다(尹健次, 1987, p.72~77 ; 車錫基, 申千湜, 1969, p.308~310).

위에서 살펴 본 通辯學校와 育英公院外에 우리 나라 近代教育의 先驅者라 할 수 있는 몇개의 기관이 있었다. 1883年에 佛蘭西 神父들에 依해 세워진 孤兒院과 1885年 가을 Allen에 依해 설립된 醫術講習班이 그것이다.

前者는 지금의 明洞에 위치하여 240名에 達하는 불쌍한 孤兒들을 收容하여 그들에게 한글과 教理書를 가르쳐 Catholic 信者를 만들었던 宗教의 特性이 強한 機關이었음에 비추어純粹한 學校로는 보기 어렵고, 後者는 病院에서 從事하는 韓人 助手들에게 病院奉仕에 繫要한 實務的 教習을 했던 것으로 이 역시 그 初期에 있어서는 正式 學校라고 부르기에는 適合치 못했던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初代宣教師 Allen(Horace N.)에 依해 세워진 廣惠院(House of Civilized Virtue)이라 불리워진 이 機關은 實로 韓國 最初의 國立病院으로서 의료사업뿐 아니라 1886年 4月부터는 學生과 研究生을 받아 西洋醫學을 가르쳤던바, 우리 나라 最初의 醫學專門教育機關인 廣惠院이야말로 세브란스醫學校(現 延世大醫科大學)의前身인 것이다(車錫基, 申千湜, Ibid., p.302).

2. 現代教育의 先驅者—Mission School들

1) 最初의 中等學校

위에서 살펴 본 教育機關들은 時代의 要請에 부응하여 새로운 形態의 教育을 試圖했다는 點에서 우리 나라의 教育史上括目할만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嚴密한 意味에서 이들 學校들은 外國語나 特殊分野의 實務的인 訓練을 시킨 것들로서 大衆을 為한 一般 普通教育機關으로서의 現代學校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未備한 點이 많았었다. 韓國教育史에 있어서 참된 意味의 一般 普通教育을 實施했던 學校들은 1885年에 문을 연 培材學堂을 비롯한 宣教師들에 依해 設立된 基督敎學校들이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現代education의 開拓者로서의 榮譽는 宜當 福音傳播의 使命을 띠고 이 나라에 온 美國人 宣教師들에게 돌아간다.

이들 宣教師들에 依해 세워진 Mission School들中 여기서는 培材學堂, 梨花學堂, 做新學校 및 貞信學校 等 네 schools에 對해 살펴 보기로 하자. 이들中 培材學堂과 做新學校는 男子學校이고, 梨花學堂과 貞信學校는 女性 education機關임은 周知의 事實이다.

培材學堂은 1885年 8月 3日 美國北監理敎宣教師인 Appenzeller(H. G.)牧師에 依해 創設되었다. 이에 앞서 그는 同年 當時의 駐韓美國領事官의 Foulk領事를 通해 國王에게 學校設立을 允許해 달라는 稟議를 올려 内諾를 얻은바 있었다. Appenzeller牧師보다 1個月 먼저 와 있던 Scranton(W. B.)의사의 집에서 있었던 韓國教育史上 歷史的인 事件이었던 1885年 8月 3日의 開校에는 英語 배우기를 希望하던 李謙羅와 高永弼이라는 두 青年이 學生으로 모습을 들어 내었다. 이들은 英語를 배워 出世하려는 動機에서 培材學堂을 찾았던 것이다. 急進의 過程에 外國과의 交涉은 그동안 내려 오던 科舉에 合格하여 官職에 오르던 立身出世의 過程에 外國語, 特히 英語에 對한 理解를 또 하나의 必須物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一種의 時代의 要請이라 할 수 있는 狀況下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나 實際에 있어서는 培材學堂은 學生들을 募集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었다. 授業料를 徵收하기는 커녕 오히려 食費를 지급하고 공책과 연필 等의 學用品을 無償으로 提供했는데도 學生을 얻기란 보통 어려웠던게 아니었다. 本國 監理敎宣敎 本部의 公認을 얻어 開校 다음 해인 1886年 6月 8日에는 6名의 學生을 얻어 授業이 시작되었는데, 그 中 한 사람은 “故鄉에 用務가 있다”고 하여 나갔고, 또 한 사람은 “三伏인 6月에 外國語를 배우는 것은 適當치 않다”는 理由로 떨어져 나갔으며, 다른 한 사람은 “家族中 肄事가 있다”는 異地로 자리를 비웠다 한다(培材 80年史, 1965, p. 101). 이러한 逆境 속에서도 學堂은 繼續 發展하여 1887年에는 西洋式 校舍를 건축하여 67名의 學生을 教育시킴으로써 落後된 民衆을 깨우쳐 教化하는데 寄與했던 것이다(Paik, 1973, p. 136).

이렇게 되자 朝廷에서는 이를 認定하고 이 學校에 好意를 보이게 되어 國王은 많은 學生들을 同校에 보내었을 뿐 아니라 이 學校 出身者들을 官職에 起用할 것을 約束하였다. 特히 앞서 6月 8일의 開學時에는 國王이 培材學堂이라는 校名을 親히 지어 當代의 名筆 丁學喬에게 學堂의 看板을 쓰게 하고 外務衛門辨 金允植을 시켜 賦額看板을 設立者 Appenzeller 牧師에게 傳達하였다(金良善, 1970, p. 65).

培材學堂은 그 教育目的이나 内容은 言할 것 없고 學校의 諸般 規則과 運營 等 모든局面에 걸쳐 우리나라 新教育의 개척자로서 封建的 舊習을 打破하고 新文化를 輸入, 傳播하여 우리나라를 開化하는데 先驅者的役割을 했을 뿐 아니라 教育事業을 通해 民族精神을 함양하는데에도 中樞的役割을 했던 것이다.

培材學堂이 設立된 1年後인 1886年에는 우리나라 教育史上 實로 놀라운 事實이 나타난다. 그것은 곧 美國北監理敎 所屬 宣教師인 Scranton(Mary F.)에 의해 세워진 梨花學堂의 出現이다. 朱子學思想에 바탕을 둔 封建的 因習에 젖어 女性에 對한 教育이 全的으로 忌避되어 왔던 當時의 社會風潮에 비추어 女性 education機關의 登場은 革命的 事件이 아닐 수 없다. 1886年 5月 31日 只今의 貞洞에 있는 建立자의 房에서 문을 연 이 梨花學堂은 培材學堂 못지 않게 學生을 얻는데 애를 먹었다. 그것은 女性을 집밖에 내어 보내지 않으려는 當時 우리나라 사람들의 傳統的 社會觀念과 外國人 特히 西洋人들에 對한 排他性과 懷疑心에서 비롯된 것이다. Scranton夫人은 四方으로 다니며 學生募集에 熱中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딸을 내어 주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까지도 딸을 내어 주지 못하게 방해했다. 그는 심지어 “西洋도깨비”라는 뒷 손가락질을 받으며 아이들을 모으려 다녀야 했었다(梨花 70年史, p.26). 最初의 學生이었던 金某라는 벼슬아치의 小實은 그나마도 3個月後에 물러가고, 갖은 고생끝에 한 女兒를 얻었는데 그는 1886年 7月 서울 장안에 무서운 호열자가 창궐하였을 때 Scranton(W. B.)의사에게 發見되어 洋國病院 保教女館에서 치료를 받게 된 어머니와 함께 온 10여세된 浮浪兒였던 “별단이”란 女兒였다. Scranton(M. F.) 女史의 끈질긴 努力으로 同年 11月에는 4名의 學生을 얻어 校舍를 移轉했고, 다음 해인 1887年 正月에는 學生의 數가 7名으로 增加해 가면서 學校로서의 命脈을 이어 갔다. 이에 이 學校는 國王과 朝廷의 認定을 받게 되었고, 明成皇后 閔妃는 “배꽃과 같이 순결하고 아름다우며 또 배맛과 같이 시원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뜻으로 李王家皇室의 상징인 배꽃(梨花)이란 두 글자를 넣은 梨花學堂이란 校名을 下賜하니 이것이 곧 오늘의 大梨花의 前身인 것이다. 梨花學堂은 계속해서 教育機關으로서 役割을 해 가던 중 1884年까지에는 18名의 學生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 까지에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學校에 안나오겠다는 아이들을 衣食住를 제공해 가며 더러는 強制로 끌어 오기도 하고 더러는 誘引하다시피 하면서 모았는데 이들에게 學校란 곧 집이자 글배우는 곳이었던 것이다(梨花 70年史, p.37). 처음엔 西洋婦人們이 學生 한 사람앞에 西洋서 온 소읍을 한 상자씩 나누어 주어 목욕탕옆에서 소읍질을 하도록 벌려놓아 주었다. 糧食으로 쓰라고 크라켈도 내 주고, 또 아기놀이를 하라고 人形도 주었다. 이것이當時의 學校의 風景이었다(韓基彥, 1974, p.264~2). Scranton夫人은當時의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다음과 같이 生生하게 말하고 있다(吳天錫, 1964, p.56~57):

“學校授業은 새 집으로 가기 6個月前에 Scranton의사의 私宅에서始作되었다. 學生 하나를 相對로 수업이開始되었다. 學生이라는 사람은 政府官吏의 첨으로서 그官吏는 自己 첨이 英語를 배워 언제나 王后의 통역이 되게 하려는 希望을 가지고 있었다. 그女子는 3個月쯤밖에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다. 最初의 長期 學生은 金夫人보다 한달 뒤인 1886年 6月에 왔다. 이 女兒가 우리에게 온 것은 틀림없이 가난때문이었는데 며칠이 지나 그의 어머니는 차라리 가난을 참을 지언정 自己 딸을 外國人에게 맡겨 둘 수는 없다고 生覺되었다. 이웃 사람들은 그를 나쁜 女人, 肉親의 愛情이 없는 어머니라고 非難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西洋女人에게 자식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그들은 얼마 동안 음식도 넉넉히 먹고 좋은 衣服도 입을 수 있고 하여 나쁘지 않을 터이지만 나중에는 美國으로 데려 갈 것이요, 그렇게 되면 그 運命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것이냐고 했다. 그리하여 그 女兒가決코 이 나라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文書로서 보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이 그 어머니의 염려를多少 완화시키는데 效果가 있었으며 몇달이 지나서야 비로서 그女子는 安心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온 學生은 집도 없는 乞兒로서 그 母親은 城門밖에서 Scranton의사가 죽어 오다 시피하여 病을 치료한 女人이었다. 韓國 사람들은 이 女兒들을 깊은 關心을 가지고 注視했다. 이들이 不平하거나 不當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있다는 事實을

안 다른 어머니들도 차차 西洋婦人을 信任하게 되어 언덕위에 있는 새 집으로 옮겨 갈 때에는 學生數가 4名으로 늘고 다음 正月에는 7名이 되었다.”

美國北監理敎宣敎師들에 依해 現代學校의 先驅者인 培材學堂과 梨花學堂(한個의 男學校와 한個의 女學校)이 設立된 것과는 別途로, 美國北長老敎 宣敎師들에 依해서도 같은 種類의 學校가 세워졌다. 그것은 곧 做新學校와 貞信學校이다.

1886年봄 梨花學堂이 設立된 것보다 늦은 時期에 서울에는 孤兒院 兼 學校가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美國北長老敎 宣敎師인 Underwood(H. G.)牧師에 依해 세워졌던 바, 그는 事實은 Appenzeller牧師보다 일찍 서울에 와서 Allen이 세운 廣惠院에서 化學과 物理學을 가르쳐 왔었다. 그가 세운 做新學校는 “예수敎學堂” 또는 “Underwood學堂”이라는 이름으로 發足되었지만 美國北長老敎宣敎會의 이에 對한 理解와 後援이 北監理敎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1897年에는 일단 門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設立者の 學校에 對한 意志는 굽히지 않았고, 이를 이어 받은 Gale(Z. S.) 宣敎師의 發議에 依해 做新學校는 “救世學堂”이란 이름으로 지금의 연지동교회 부속건물에 校舍를 定하고 門을 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15年 4月에는 美國北長老敎, 南北監理敎, Canada長老敎 等 宣敎部의 聯合委員會의 管理로 鍾路 中央基督教青年會館을 빌어 聯合大學의 設立認可를 얻기까지 “做新學校大學部”를 두게 되니 이것이 곧 오늘의 延世大學의 前身이다(韓國敎育史研究會, 1984, p.197 ; 金良善, 1970, p.65~66).

做新學校의 初期 狀況에 關해 Gilmore(p.277)는 다음과 같이 描寫하고 있다(Underwood, 1926, p.24~22 ; Paik, 1973, p.137~138 참조) :

“...At first, the only inmates admitted were boys, and before long there were over forty of those who were lodged, boarded and taught in the institution. The studies included : first, the vernacular under a competent native scholar ; second, the Chinese written language also under a native instructor, for the aim is to turn out scholars who will in native lore, be the peers of any in the kingdom ; third, the English language, and with this as the scholars grow old enough to profit by it, instruction is given in sciences ; fourth, moral and religious instruction is given with Christianity as its basis.”

北監理敎 宣敎師들이 그랬듯이 美國北長老敎 宣敎師들도 女性敎育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男子學校인 做新學校와 함께 하나의 女學校를 세웠는바 이것이 곧 貞信學校이다. 이 貞信學校는 1886年에 國立病院 廣惠院의 看護員으로 來韓한 Ellers(A. Z.)嬢에 依해 設立되었다. 그녀는 1888年에 Underwood가 세운 예수學堂의 附帶事業으로 이 學校를 세워 女性敎育에 着手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身病으로 이 일을 繼續치 못하게 되었으므로 Hayden(M. E.)嬢이 이 일을 一時 맡게 되었고, 1890年에는 다시 Doty(S. A.)嬢에게 이 敎育事業이 넘겨졌다. 이 때 이 學校는 8才가량 되는 女學生 9名을 얻어 가르쳤고, 1892年에는 Strong(V. B.), Arbuckle(V. C.)兩 宣敎師의 協助를 얻어 學校로서의 形態를 갖추게 되었으며, 1895年 가을에는 蓮池洞으로 校舍를 옮겨 學校規模를 더욱 확장했을 뿐 아니라 校名도 蓮洞女學校로

바뀌었다. 이것이 곧 오늘의 貞信女子中高等學校의 前身이다. 1903年에 蓮洞女子中學校로改名하기도 했던 이 貞信學校는 밝혀진바에 依하면 처음 門을 열 때 學生 한명으로 始作했던바 이 學生이 바로 第1回 卒業生이었고, 第二回에는 25名, 第五回에는 12名 等 5年間 모두 52名의 卒業生을 輩出하였다(金良善, 1970, p.66 ; 韓基彥, 1971, p.265).

2) 最初의 大學들

美國 改新教 宣教師들에 依해 이루어진 우리 나라 教育의 現代化는 위에서 살펴 본 一般普通教育의 水準에서 뿐 아니라 高等教育의 水準에서도 進捗된다. 平壤의 崇實專門學校와 서울의 세브란스 醫學專門學校의 出現은 우리 나라에 現代式 高等 education의 새로운 章을 여는 획기적인 事件이다.

韓國 宣教에 커다란 功獻을 한 馬布三悅博士와 裴達良博士는 福音傳播의 沃土인 平壤에 宣敎地를 定한 幸運을 얻은 탓으로 教會設立과 教育事業에서 全國에서 가장 커다란 成功을 거두었다. 이들에 依한 事業은 1900年 頃에는 全國의 約 4分의 3을 點하는 大盛況을 보게 되었고, 이러한 狀況을 背景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最初의 高等 education 기관이 出現한다. Moffett博士를 設立者로 하고 李永彥을 教師로 하여 1894年에 平壤의 널다리골 教會에서 始作된 한 작은 學校는 1897年에는 Baird博士를 校長으로 그리고 朴子重을 教師로 하여 “예수敎教堂”이라는 이름으로 北長老敎宣敎部 平壤station의 直營學校가 된다. 이 學校는 1901年에는 韓國式 2層校舍를 新築했고, 그 後에는 裴偉良 校長의 祕書이면서 同學堂의 學生이었던 崔光玉에 依해 崇實學堂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다. 그 後 崇實學堂은 急速度로 發達하여 1906年에는 高等 education의 必要에 따라 마침내 大學部를 設置하게 되었고, 이듬해에는 韓國政府로 부터 認可를 얻어 우리 나라 最初의 大學이 되었던 것이다. 이 學校는 1909年에는 2名의 卒業生을 내어 그들에게 最初의 文學士學位를 授與한바 있다(金良善, 1970, p.67).

1885年가을 Allen에 依해 發足된 韓國最初의 西洋式病院인 廣惠院에서 運營되던 醫學班은 Allen, Underwood 및 Heron을 教授로 하여 1886年 4月 10日에 正式 醫學專門 education 기관으로 開校되었다. 그러나 이는 如前히 韓國政府의 直營機關이었다. 이러한 中 1893年에는 韓國에 있어서의 近代醫學 發展의 功勞者인 Elison博士가 來韓하여 이 機關(濟衆院)을 引受받아 宣敎會 單獨經營機關으로 만들었고, 1899年에는 Louis Severance라는 本國의 慈善家에게서莫大한 자금을 기부받아 南大門 밖 구리개(銅峴)에 터를 잡아 새로운 病院을 設立하였던바 이때로 부터 醫學 education은 本格化되었다. 이리하여 1908年에는 7名의 첫 卒業生을 輩出했다. 우리 나라 最初의 洋醫師는 이렇게 해서 탄생했고, 이들을 길리낸 이 學校가 곧 오늘의 延世大 醫大的 前身인 세브란스 醫科大學의 出發이었던 것이다(金良善, Ibid.).

3) 그밖의 Mission School들

지금까지 살펴 본 外國人 宣教師들에 依해 設立된 基督敎(改新敎) school들은 宣敎 本然의 目的達成은 말할 것 없고 오랜동안 이어져 오던 폐쇄적이고 獨善的인 儒敎哲學에서 비롯된

封建的 舊敎育을 打破하고 革新하여 우리 教育을 現代化하는데 크게 寄與했음은勿論, 先進西歐文明을 받아드려 土着化함으로써 우리나라를 開化하는데 눈부신 功獻을 했다. 宣敎師들에 依해 세워진 이러한 基督敎 school는 그 後 계속 나타나 韓日合併 直前인 1909年까지에는 全國各地에 헤아릴 수 없는 程度로 그 數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 注目할 것은 이들 Mission School들은 서울에서 始作되었지만 서울에만 머물르지 않고 차츰 各地方으로擴散된다는 事實이요, 또한 特記할만한 것은 그동안 男子에게만 獨占되었던 教育機會가 이들 學校들이 세워짐으로써 女性들에게도 開放되었고 全國各地에 設立된 女子學校의 數가 男子學校와 거의 비슷하다는 事實이다. 여기 또 한가지 看過할 수 없는 것은 1898年에 平壤에 모습을 들어 낸 盲哑學校의 登場이다. 이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장애자를 위한 特殊敎育機關의 嘴矢로서 初代宣敎師들에 依한 基督敎의 人道主義와 博愛精神의 結晶인 것이다.

1910年까지 세워진 基督敎 school의 宗派別 統計를 보면, 長老敎系 school가 501個校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監理敎系로 158個校이며, 聖公會 4個校, 安息敎系 2個校의 順으로 되어 있다. 또한 宗派未祥의 school는 84個校이고, 宗派聯合으로 세워진 school도 1個校로 되어 있다. 한편 天主敎系의 school도 46個校이고, 新舊敎가 設立한 school의 總數는 796個校에 達한다(李萬珪, 1949, 朝鮮敎育史(下), p.159~160). 1885年부터 1909年까지 우리 나라 各地方에 세워진 主要한 Mission School들은 別表(韓國敎育史研究會編, 1984, p.200)와 같다.

基督教系 私立學校

| 연대 | 교명 | 교파 | 소재지 | 연대 | 교명 | 교파 | 소재지 |
|------|-------|-----|-----|------|------------------|-----|-----|
| 1885 | 廣惠院 | | 서울 | 1898 | 明信學校 | 장로회 | 재령 |
| 1885 | 培材學堂 | 감리회 | 서울 | 1900 | 平壤神學校 | 장로회 | 평양 |
| 1886 | 梨花學堂 | 감리회 | 서울 | 1903 | 崇義女學校 | 장로회 | 평양 |
| 1886 | 徽新學校 | 장로회 | 서울 | 1903 | 樓氏女學校 (元山女學校) | 감리회 | 원산 |
| 1887 | 貞信女學校 | 장로회 | 서울 | 1903 | 貞明女學校 | 장로회 | 목포 |
| 1894 | 光成學校 | 감리회 | 평양 | 1904 | 德明學校 | 감리회 | 원산 |
| 1894 | 崇德學校 | 감리회 | 평양 | 1904 | 好壽敦女學校 | 감리회 | 개성 |
| 1894 | 正義女學校 | 감리회 | 평양 | 1904 | 進誠女學校 | 장로회 | 원산 |
| 1895 | 日新女學校 | 감리회 | 동래 | 1904 | 懿昌學校 | 감리회 | 해주 |
| 1896 | 正進學校 | 감리회 | 평양 | 1905 | 永明學校 | 감리회 | 공주 |
| 1896 | 攻玉學校 | 감리회 | 서울 | 1906 | 啓聖學校 | 장로회 | 대구 |
| 1897 | 崇實學校 | 장로회 | 평양 | 1906 | 信聖學校 | 장로회 | 선천 |
| 1897 | 信軍學校 | 감리회 | 서울 | 1906 | 保聖女學校 | 장로회 | 선천 |
| 1897 | 永化女學校 | 감리회 | 서울 | 1906 | 義明學校 | 안식교 | 순안 |
| 1898 | 培花女學校 | 감리회 | 서울 | 1906 | 韓英書院 | 감리회 | 개성 |
| 1898 | 盲哑學校 | 감리회 | 평양 | | | | |

| 연 대 | 교 명 | 교 파 | 소재지 | 연 대 | 교 명 | 교 파 | 소재지 |
|------|--------|-----|-----|------|-------|-----|-----|
| 1906 | 美理欽學校 | 감리회 | 개 성 | 1907 | 紀全女學校 | 장로회 | 전 주 |
| 1907 | 藥峴學校 | 천주교 | 서 울 | 1908 | 新興學校 | 장로회 | 전 주 |
| 1907 | 須皮亞女學校 | 장로회 | 광 주 | 1908 | 昌信學校 | 장로회 | 마 산 |
| 1907 | 信明女學校 | 장로회 | 대 구 | 1909 | 懿貞學校 | 감리회 | 해 주 |

基督教(改新教)가 우리 나라에 들어와 教育事業이 펼쳐지기 始作한 以來 1894年 우리 政府에 依한 教育改革이 展開될 때까지 이들 Mission School들은 우리 나라 教育의 舊時代의 殘在를 清算하고 새 時代에 부응하는 新教育을 開拓하는 先驅者로서 穎起적인 役割을 감당했던 것이다.

이러한 事實에 對해 Underwood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1926, p.8):“宣教師들의 入國과 그 活動이 韓國의 教育에 새로운局面를 展開시켰다”. 獨立新聞도 그 論說에서 初代 宣教師의 教育業蹟에 對해 다음과 같이 높은 評價를 가하고 있다(獨立新聞, 1896年 4月 21號 ; 韓國教育史研究會編, 1984, p.199~201 참조)：“…親舊敘는 萬里他國에 自己돈을 들여 衣服, 居處를 準備하고 學校를 設置하여 朝鮮男女를 같이 教育하며 밤낮 가르쳤고, 옳고, 참되고, 正直하고 옳은 行實과 堂堂한 心法을 공부케 하여 주었다…”

V. Mission School들의 教育과 그것이 韓國教育의 現代化에 끼친 影響

1. Mission School들의 出現과 舊教育의 没落

1885年 Appenzeller에 依해 培材學堂이 設立된 以來 美國 改新教 宣教師들이 세운 여러 基督教學校들은 오랜 동안 封建社會의 暗黑 속에서 해메던 우매한 民衆을 教化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閉鎖的이고 落後된 教育을 現代化하는데 決定的인 役割을 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들 學校들의 教育目的과 内容과 實際局面을 通해 現實化했고 이러한 基督教學校들의 教育은 마침내 우리 나라의 教育이 안고 있는 舊時代의 封建體制를 타파하고 여기에 새로운 紀元을 열었던 것이다.

只今까지 오랜 동안 있어 온 우리 나라의 教育에 目的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少數特權層인 兩班들의子弟들로 하여금 科學에 合格하여 높은 官職에 오를 수 있도록 準備하는 것이었다. 一般庶民大衆에게는 教育의 機會를 얻기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教育의 内容이란 科學의 生進科나 文科(大科)에서 賦課되는 領域인 儒學의 經典이 全部였고, 雜科에 賦課되는 實科에 있어서는 下級技術職官吏를 선발하는 雜科 그 自體가 輕視됨에 따라 實際教育機關에서 차지하는 教育의 内容이나 活動이란 极히 微微했던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合理的, 科學的 思考나 創意力이나 批判的力量 等의 함양은 말 할 것 없고 教養을 갖춘 調和로운 全人으로서의 人間性의 實現이라고 하는 教育 本然의 目的, 機能의 遂行이란 舊 教育에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基督教學校들의 出現 그 자체와 그리고 이들 학교들의 教育目的, 内容 및 實際局面들은 이러한 落後된 傳統教育을打破하고 全혀 새로운 pattern의 教育哲學과 内容과 教育行爲를 우리 나라 學校教育에 심는데 實로 穎起적인 役割을 했던 것이다. 이제 이들 學校들, 特히 앞에서 살펴본 몇몇 Mission School들의 教育內的諸局面들을 考察함으로써 이를 確認코자 한다.

3. Mission School들에 依한 現代教育의 展開

韓國 最初의 現代學校인 培材學堂은 그 教育目的에서 그 동안 傳統的인 教育에서는 想像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理念을 찾아 볼 수 있다. 그것은 “欲為大者 當為人役”(큰 人物이 되려는 사람은 남을 畏해 奉仕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堂訓에 如實히 나타나 있다. 이는 “너희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者는 너희를 섬기는 者가 되고 너희중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者는 너희 從이 되어야 하리라”(마 20:26~27)고 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設立者인 Appenzeller牧師가 지은 것으로서當時의 漢學者인 趙漢奎가 漢譯한 것이다(韓基彥, 1971, p.262). 이는 西洋文物의 急激한 影響으로 英語에 對한 理解能力이 立身出世의 方便으로서 添加됨에 따라 英語를 배워 높은 階位 자리에 오르려는 動機에서 學堂에 들어온 最初의 培材學生인 李謙羅와 高永弼을, 그리고 같은 動機로 앞으로 계속해서 培材學堂의 문을 두드릴 우리 나라 學生들을 念頭에 두고 制定한 校(敎)訓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校訓을 바탕으로 하여 Appenzeller는 培材學堂의 設立目的을 “우리는 通譯官을 養成하거나 우리 學校의 일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自由教育을 받은 사람을 내 보내려는 것이다.”(Paik, 1973, p.119)라고 보다 더 具體的으로 明示하고 있다. 이 教育目的에서 우리는 기나긴 우리나라 教育史上 全혀 새로운 教育理念을 發見하게 된다. 그것은 自身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謙讓之道와 남을 섬기는 奉仕精神이다. 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科學에 合格하여 높은 階位 자리에 올라 힘없는 사람들을 支配하고 富貴와 權勢를 누리려는 動機가 教育의 唯一한 動機와 目的이었던 그동안의 儒學教育과 對照할 때 實로 劃期의 願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教育의 實質的 目的을 앞으로의 높은 官職에의 지름길이 될 通譯官의 養成이나 人材培養의 요람이 될 培材學堂의 일꾼양성에 두지 않고 自由教育, 即 liberal education을 받은 教養人の輩出에 두었다는 點에서 우리는 培材學堂이 一般 教養人の 양성을 위한 自由教育을 志向하여 탄생하였다는 事實을 發見하게 되는 것이다.

培材學堂의 教育課程의 主要한 内容들로는 聖經, 漢文(經書, 史記), 英語, 天文地理, 生理, 數學, 手工 等이 包含되었고, 演說會, 討論會와 같은 思想發表의 訓練과 野球, 蹴球, 庭球 等 體育科目들이 들어 있었던바, 一部 教科를 除外한 이러한 커리큘럼은 只今까지의 우리나라 儒學教育에서는 全혀 볼 수 없었던 것들로서 演說會, 討論會 等을 通해 學生들은 自由로운 思想發表力과 批判的精神과 民主的共同意識, 參與意識을 함양할 수 있었고, 球技,

體育科目을 통해서는 知的陶冶가 教育의 全部였던 傳統的教育에 있어서와는 달리 學生들은 心身의 均衡된 發達을 期約할 수 있었던 것이다.

培材學堂의 學則을 보면 學費를 마련할 수 없는 學生들에게는 일거리를 주어 재힘으로 벌어서 學費를 調達케 함으로써 (學則 2)* 勞動의 高貴함과 自立精神의 真價를 깨우쳐 주었는바 이는 肉體勞動을 賤視하고 支配階級의 억압과 수탈에 對한 無條件的屈服만이 最高의 美德이었던 封建的 社會倫理가 支配하는 傳統的 education에서는 想像조차할 수 없는 慣行인 것이다.

培材學堂의 教育에서는 公共倫理意識이나 준법정신이 鼓吹되었고, 學堂 内外에서의 禮節과 生活紀綱確立이 強調되고 있는가 하면 學事와 教育의 質이 嚴格하게 管理되고 있는 等 現代教育의 開拓者로서의 모든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事實은 開校 4年後 (1889)에 制定된 學則(培材80年史, p.52~54)에 잘 나타나 있다. 그 主要한 것을 살펴 보자:

學生은 學校의 建物, 器物이나 所有物을 犯하거나 私有化할 수 없고(學則9, 10)* 國法을 犯한 者는 法官에게 넘겨지도록(學則 8)* 規定하고 있고, 午前 8時 15分에서 11시 30분 까지와 午後 1時로 부터 4時까지로 되어 있는 授業時間에의 出入은 嚴히 統制되고 있으며(學則 3, 5, 6, 7)*, 理由없는 缺席을 禁하고 난잡한 生活 行實을 禁했는가 하면 (學則11, 12, 13, 14)*, 放課後의 學生의 生活 規範까지도 學則으로 定하고 있다(學則20, 22).*

한便 두 學期로 되어 있는 教育의 質 管理에도 같은 配慮가 되어 있고(學則 17)* 特히 學生의 懲戒나 成績은 반듯이 學父母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어(學則 16, 18)* 教育에 있어서의 學校와 家庭의 긴밀한 유대, 협력을 圖謀하고 있는 等 우리는 培材學堂의 教育이 事實上 現代education의 基本的骨格을 거의 모두 갖추고 있음을 적어도 그 學則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學則 9: 學校의 建物이나 用器를 더럽히거나 破傷하면 損害를 배상한다.

學則 10: 學校의 冊이나 쓰는 器物이나 自己의 것이 아니면 一切 가지지 말고 맡은 이에게 돌리어 본 뜻으로 가게 하고,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맡은 이는 그 欲을 問討한다.

學則 8: …國法을 犯한 者는 法官에게 넘긴다.

學則 3: 登校時間은 午前 8時 15分으로 11時 30分까지며, 午後는 1時로 부터 4時까지 하되 나오고 물러갈 때는 문란하게 느리거나 뛰고 떠들면 안된다.

學則 5: 學生의 出入은 꼭 教師의 許可를 받으며 學生票를 감독자에게 보인다.

學則 6: 마음대로出入하면 罰한다.

學則 7: 許可를 미리 받지 않고서 事後에 승락을 얻으려는 者는 許可할만한 일이라도 용서하지 않는다.

學則 11: 病弱계하고 缺席하지 말며, 술과 놀음과 못된 말과 음란한 冊을 읽음을 禁한다.

學則 12: 授業時間이 아니면 學校에 들어오지 말고 學校에서 싸우지 못한다.

學則 13: 授業時間에 外人이 찾아 오는 것을 禁한다.

學則 14: 마음대로 오다 안오다 하며 1個月이 넘는 者는 學校에서 際名한다.

學則 20: 해가 지면 房에서 공부하고 밤 10時 以後에는 등불을 끈다.

學則 22: 自己 房을 每日 朝飯前에 쓸고 닦고 居處를 깨끗히 한다.

朱子學思想에 바탕을 둔 封建的 因習에 젖어 女性에 對한 教育이 禁忌되어 왔던 朝鮮社會에 있어서의 梨花學堂의 出現은 實로 이 땅에 벌어진 一大文化社會의 革命이라 아니 할 수 없다. 培材學堂과 함께 자칫하면 教育으로 開化한다고 하는 美名下에 韓國人(女性)들을 無條件 西歐化하려 했던 것으로 誤認받기 쉬웠던 “西洋學校”인 梨花學堂은 그 教育目的에 있어 그러한 意圖가 全혀 없고 오히려 참된 固有한 韓國人(女性)의 養成을 志向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設立者인 Scranton夫人은 梨花學堂의 設立目的과 教育方針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Paik, 1973, p.119) “우리의 目標는 女兒들을 外國人의 生活과 衣服 및 環境에 맞도록 變하게 하는데 있지 않다… 우리는 단지 韓國人을 보다 나은 韓國人으로 만들음으로써 滿足한다. 우리는 韓國人이 韓國的인 것에 對해 珍持를 갖게 되기를 希望한다. 그리스도와 그의 教訓을 通해 完全無缺한 韓國人을 만들고자 希望하는 바이다.”

梨花學堂은 韓國女性들을 우리가 崇尚하는 典型의 賢母良妻로 養成할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同時に 傳道人으로 育成할 것을 志向하고 있었음을 다음과 같은 Gilmore의 말(梨花70年史, p.34)을 通해 알 수 있다. “韓國女兒를 그들이 生活을 賽爲하여야 하는 條件 밑에서 模範的主婦로 만드는 同時に 그들의 친척과 同僚사이에 基督敎의 宣教師가 되도록 만드는데 있다.”

主祈禱文과 “예수사랑하심은”을 英語로 배우고 禮拜보는 것을 主된 教育內容으로 해서始作된 梨花學堂의 教育은 後에 聖經, 英語, 算術, 彥文(한글), 唱歌, 歷史, 英語文法, 글씨쓰기, 千字文 等으로 補完되어 이땅의 女性들을 一般 教養人으로 養育하는데 注力했고, 그면서도 이 學校가 特別히 配慮했던 것은 韓國女性들을 知, 德, 信이 兼備한 參된 教養女性으로 養成하는 일이었다. 梨花學堂이 設立된지 얼마 後에 나타난(1886) 貞信學校의 教育도 梨花學堂이 그려했듯이 學生들을 固有한 韓國女性으로 養成하려 했다는데서 우선 그 特徵을 찾을 수 있다. 貞信學校의 教育形態와 教育目的은 “…그들(韓國女兒들)은 할 수 있는 대로 自己의 일을 自自身이 스스로 하고 있으며, 韓國式으로 飲食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일을 배우고 있다. 外國敎育을 함으로써 이들을 韓國家庭에 맞지 않는 教育을 한다는 것은 잘 못이라고 生覺한다. 우리의 目的是 그들을 基督敎的 韩國人을 만드는데 있고 美國女性을 만드는데 있지 않다.”라고 한 Underwood牧師夫人的 1890年 어느 날의 말에 잘 表現되어 있다. 이러한 脈絡에서 貞信學校는 그 初創期에는 外國의 것이어서 教育目的에 맞지 않는다 해서 한때 英語가 教育課程에서 除外되기도 했다.

貞信學校의 Curriculum은 재봉과 조리와 韓國語 및 漢文이 主를 이루었고 이러한 教科들보다 웨센 強調되었던 것은 聖經敎科과 信實한 그리스도人の 生活이었다(Underwood, 1973, p.139).

學則 17: 都講은 每年 2回로 定하고, 공부의多少대로 點數를 주어 100點으로 滿點을 삼으며, 學課는 3種이나 5種이나 多少 같지 않고, 合한 數를 책의 數로 除하여 實數가 70點以上인 者는 1等으로 하고 70點以下은 一等이 못된다.

學則 16: 退學을 하려는 때는 父母나 추천인의 편지를 가져 오게 한다.

學則 18: 工課한 點票는 直接 學生의 父母나 추천인에게 보낸다.

1886年에 모습을 나타내기 始作한 梨花學堂과 貞信學校를 비롯한 Mission女學校들은 오랜 동안 封建的 因習속에 유폐되었던 女性들을 社會的 抑壓과 無知에서 解放시켜 文明의 世界로 이끌어 주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女性들이 집밖의 世界에 自由롭게 드나든다는 것은 社會的으로 容認되지 않았았고, 향차 그들에게 新學問을 傳授하여 그들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想像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登場한 基督教女學校들은 相當 期間에 걸쳐 傳統社會의 저항과 여러 갈등에도 不拘하고 이 땅의 女性들을 억압과 無知의 암흑에서 解放하여 紛爭하고 教化해서 그들 女性들로 하여금 人間的으로 觉醒케 하는데 크게 寄與했던 것이다.

結語

오랜 歲月동안 소중히 그리고 완고하게 固守되어 오던 社會, 文化的 傳統을 타파하고 거기에 새로운 理念과 價值觀과 體制를 심어 움트게 하고 자라게 하며 花開의 열매맺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옛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고 試圖할 때 여기엔 반드시 옛것들을 지탱해 온 劢力으로 부터의 저항이 일기 마련이다.

福音傳播의 使命을 띠고 들어 온 宣教師들에 의해 펼쳐진 教育事業도 既存의 理想과 秩序를 수호하려는 努力으로 부터의 거센 抵抗에 부딛쳤던 것이 事實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들 宣教師들에 의해 펼쳐진 教育事業은 本來의 宣敎目的의 成就是勿論, 허다한 惡條件속에서도 우리 나라의 落後된 옛 教育을 그 理念, 内容, 方法 等의 全局面에 걸쳐 革新하여近代化하는 劃期的인 課業을達成함과 아울러, 우매한 大衆에 對한 教化를 通해 國民意識을 刷新, 醇化하고 새로운 時代를 개척하는데 寄與했던 것이다. 이 나라에 있어서의 萬人에 教育의 機會를 고루 提供하고 이를 通해 心身의 調和를 갖춘 全人으로서의 教養과 生活人으로서의 有能한 技倅과 共同體의 成員으로서의 社會適應性과, 萬物의 靈長으로서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形像을 지닌 被造物로서의 人間의 尊嚴性과 個性의 尊貴함을 實現하는 참된 意味에 있어서의 教育은 實로 初期 基督敎學校들에 의해 이 나라에서 幕을 열었던 것이다.

參考文獻

- 金良善, 1970, “韓國現代教育史上에 있어서의 基督敎學校의 位置와 貢獻,” 崇實大學論文集 崇實大學附設人文社會科學研究所
 獨立新聞, 1896年 4月 21日字
 朴恩植, 1975, “學規新論,” 朴恩植全集, 檀國大學出版部.
 1975, “儒敎求新論,” 朴恩植全集, 檀國大學出版部
 培材80年史, 培材中高等學校
 培材學報, 培材中高等學校
 吳天錫, 1964, 韓國新敎育史, 現代敎育叢書出版社
 尹建次, 1964, 韓國近代敎育의 思想과 運動(沈聖輔譯), 圖書出版 青史
 李沂, 1955, “敎育宗旨,” 海鶴遺書, 國史編纂委員會.
 李萬珪, 1949, 朝鮮敎育史(下), 乙酉文化社
 梨花70年史, 梨花女子中高等學校
 車錫基, 申千湜, 1969, 韓國敎育史研究, 載東文化社
 韓國敎育史研究會, 1984, 韓國敎育史, 教育出版社
 韓基彥, 1971, 韓國敎育史, 光明印刷所
 Clark, A. D., 1971,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Gilmore, G. W., “Korea from its Capital,” quoted in Allen, H. W., *Chronological Index Korean-American Relations*, Vol. I, No.28, *Frelinghusen to Foote*, 1883.
 Loomis, 1916, *About Two Koreans*
 Maclay, R. S., 1884, *Commencement of Korea Methodist Episcopal Church*, The Foreign Missionary Press
 North Presbyterian Mission Report for 1885
 Paik, L. G.,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Yousei Univereity Press.
 Underwood, H. H., 1926, *Outline History of Modern Education in Korea*, New York University
 Underwood, L. H., *Fifteen Years Among Top-Knots*